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및 조례제정

종합육성계획 수립...기업 지원방안 마련

공공서비스 사업 · 전문인력 양성 · 창업지원 등

고흥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고흥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5일 고흥군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드론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고흥군은 드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창업지원 및 드론산업 정책 자문단 구성·운영 등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포함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고흥군이 드론산업의 메카가 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면서 "고흥을 드론산업 집적화 된 개발-실증-인증-보급 등 토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과 드론 서비스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최대의 드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전국 유일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및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드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규제발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고흥=한윤섭 기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박차

농어촌공사 보성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보성지사는 2019년 농지은행사업비 68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현재 57억(84%)을 집행하였다.

한편, 농지시장안정화와 최근 부동산경기침체로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공공임대 농지매입사업비 17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50%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 순서대로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사업비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농업구조개선지원과 농지가격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은퇴하거나 이농 또

는 전업하고자 하나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여 원활한 영농토 및 이농 등을 지원하고 매입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영농기반이 취약한 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등에게 장기임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74세이하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할 때에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

여수시,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 위해 조례 개정

봉투 무게 기준 마련 등

여수시가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해 지난 9일 '여수시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공포했다.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먼저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대상은 50L, 75L, 100L 종량제 봉투며, 각각 10kg, 15kg,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30L와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제외되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편의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곡성군, 중학생 27명 中 보타구 홈스테이 우호 교류

지역의 교육과 문화 체험 · 역사 현장 찾아 탐방



곡성군은 지역 3개교 중학생 등 27명으로 구성된 중국 보타구 우호 교류 홈스테이단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홈스테이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보타구, 상해 일원을 방문해 해당 지역의 교육과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현장을 찾아 탐방의 기회

를 가졌다. 곡성군과 중국 보타구는 2007년부터 13년째 우호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양 지역 청소년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홈스테이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9차례 홈스테이를 진행했으며 이번이 10번째다.

홈스테이단은 자매결연 학생 가정

에서 생활하며 중국의 생활 모습과 정서를 체험하며 양국의 문화를 주고 받았다. 아울러 곡성군과 중국 보타구가 국제우호교류를 맺게 된 배경이 되는 심원과 주가점 남사해면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며 중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무신(홍커우)공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홈스테이단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대한민국 건국여념을 되새겼다. 이어 중국의 발전상을 대표하는 첨단도시 상하이로 찾아 동방명주, 상해역사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홈스테이를 마쳤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타구와의 중학생 홈스테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순천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순천시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와 연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최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순천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역적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아이디어는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본선 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혁신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지역민은 물론 순천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균형발전박람회 사무국(02-398-7662), 순천시 자치혁신과(061-749-5597) 또는 홈페이지(http://www.goregion.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16일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



획안과 함께 이메일(region2019@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광양시보건소는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해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 자료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공개 모집해 훈련된 조

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기본적인 신체 계측과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 삶의 질 등 총 21개 영역 201개 문항으로 조사에 참여한 가구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농협상품권)이 전달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2019 음식문화아카데미 개강

보성군은 지난 8일에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70여명과 함께 제3기 음식문화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음식문화아카데미는 '남도음식 1번지' 보성군에 부합하는 명품음식개발 육성과 고객만족 외식경영 전문교육으로 진행된다. 외식업 영업주의 글로벌 외식서비스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은 전문업체인 '희망교육개발원(대표 김경희)'에서 운영하며, 매주 1회, 총 9회에 걸쳐 실시된다.

보성의 맛과 멋을 살리는 로컬푸드 매뉴얼교육, 인문학 감성을 입힌 남도음식 등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흥

보 마케팅 교육이 편성돼 있어 영업주들의 기대가 높다.

또한, 타지역의 음식문화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현장학습을 진행하여 보성군 대표맛집 육성과 메뉴 개발 등 음식문화개선에 더욱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방송인 안문현의 '행복과 소통으로 맛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다시 찾게 만드는 보성, 솔직하고 담백한 행복 소통 방법'으로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보성=안규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순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